

# 소비자 연령별 투자행동 차이 분석: IMF 경제위기 전·후 비교

An Analysis of Differences in Investment Behavior Over Consumer's ages: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 교수 정 순 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 교수 여 윤 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essor* : Joung, Soon Hee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Assistant Professor* : Yuh, Yoon Kyu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household's investment behaviors over consumer's ages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using 1995 and 2000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in Korea. Household's investment behaviors were compared in terms of household's financial statements, amounts and proportions invested in various assets, an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s. The proportion invested in securities of all households.

In terms of the proportion invested, consumers under 40s increased the proportion invested in insurance while consumers over 50s increased the proportion invested in savings and trusts in 1995 than in 2000. Consumers of all ages increased the proportion invested in securities in 2000 than in 1995. Young households had higher rate of return in 1995 while old households had higher rate of return in 2000.

\* 대표저자, 연결저자(Corresponding Author): 정순희(jsh@ewha.ac.kr)

**Key Words** : 소비자 연령별 투자행동(investment behavior over consumer' s age), 투자비중(Investment proportion), 투자성과(Investment outpu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쳐서 소득과 부(富)의 극대화, 효율적인 소비의 실천, 재무 측면에서의 생활만족의 발견, 재무안전감의 달성, 노후대비를 위한 부(富)의 축적과 같은 재무목표를 가지고 있다(Garman & Forgue, 1994). 그러나 실제로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지출의 흐름은 불일치하며, 소비자들은 여기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용하여 보다 많은 미래수익을 얻고자하는 투자행동을 계획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투자행동은 개인의 효용과 복지감의 증대를 꾀하기도 하지만, 경제주체로서 기업과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의 투자안은 종류와 특성에 따라 금융환경에 의해 받는 영향이 틀리기 때문에, 소비자가 하나의 투자안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투자금액을 상관관계( $\rho$ )가 적은 두 개 이상의 투자안에 분산시켜, 잘못된 투자의사결정과 급격한 투자환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신을 둘러싼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투자대상의 종류와 투자비중을 적절히 변경하며 자신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소비자를 둘러싼 금융환경은 경기종합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1인당 국민 총소득, 실업률 등의 거시적 경제지표로 대변되는 금융환경과

개인 금융자산의 증가, 베이비 붐세대의 등장과 노령화 사회의 진전, 소비자들의 욕구와 투자스타일의 변화,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금융의 세계화와 자율화 등의 사회경제적 금융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소비자의 금융환경은 급속히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행동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소비자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한 시점에서의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금융환경요인을 고려한 가계 포트폴리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에도 IMF라는 경제적 특수상황을 거시적 환경요인으로 보고, 가계 포트폴리오 변화행동을 유형화(유동성 유지형/자산증식 유지형/보험 및 연금 유지형/ 유동성 변화형/ 자산증식 변화형, 보험 및 연금 변화형)하고 각 유형별 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둘러싼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행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IMF 전인 1995년과 IMF 이후인 2000년 두 시점을 선정하여 각 시점에서의 금융환경의 특성과 변화 속에서 소비자의 내적투자자원도 변화하고 또 투자행동도 변화했으리라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양 시점에서의 투자행동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연령별 투자행동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소비자의 투자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비자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가구주 소비자의 연령에 따라 그 가계의 가족구조와 상황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가족원의 재정요구와 이용가능한 자원도 변화하기 때문에 가구주 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투자행동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MF를 전후로 발생한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투자행동의 특성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부딪히는 의사결정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연령단계에서의 전형적인 투자행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 투자설계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투자상담사에게는 소비자연령별 투자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투자방법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소비자집단별로 투자행동 및 투자성과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간의 재무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재무만족감의 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 전체의 소득과 부(富)의 극대화, 재무 측면에서의 생활만족, 재무안전감의 달성, 노후대비를 위한 부(富)의 축적을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투자행동변화를 통해 달성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복지증진에서 나아가 경제주체로서 기업과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원활한 기능을 촉진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1995년과 2000년 각 시점에서 가구주 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투자행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 시점에서 소비자연령별로 내적투자자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1995년과 2000년의 소비자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둘째, 양 시점에서 소비자연령별로 투자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요구불예금, 저축 및 신탁, 저축성보험, 유가증권, 갯돈불입금, 빌려준 돈 등의 다양한 투자안에 대한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셋째, 양 시점에서 소비자연령별로 투자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총 금융자산 대비 이자배당수익을 분석하여 실제 투자수익률을 산출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지금까지의 소비자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는 저축과 부채에 관한 연구와 좀더 포괄적인 가계 포트폴리오에 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 시점에서의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가계 포트폴리오 결정요인에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가계의 자산수준, 위험태도, 가족생활주기, 저축목적, 가구주 연령, 성별, 직업, 교육수준, 인종, 거주지역, 가족원 수, 소득, 부채유무, 자가주택 소유여부가 가계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amaswami(1992)는 보유자산의 종류와 자산, 부채, 소득, 교육수준, 위험회피도, 가족생활주기 등의 가계특성과 투자목적(현재소득, 단기적 필요, 자녀교육, 퇴직, 절세, 유동성) 간의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보유자산의 종류와 가계특성과 투자목적 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계포트폴리오 보유여부-요구불

예금 및 저축성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및 단기 시장금리부 예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생명보험, 주택, 연금,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의 직접적인 정적효과가 있으며, 양도성 예금증서와 단기 시장금리부예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 간접적인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agley와 Gannon(1991)은 Missouri 지역의 가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자산을 더 보유하고자 하며, 퇴직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을 줄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정은주(1991)는 위험태도와 위험자산 보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였는데 그 결과 2030대의 젊은층일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위험추구형으로 나타났고, 정운영(1996)은 결혼초기와 중기의 저축종류별 보유여부와 투자관리유형을 비교하였는데, 결혼초기에 비해 결혼중기에 더욱 변화지향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실·최현자(1998)는 총자산 대비 여러 자산의 비중에 따라 가계 포트폴리오를 유동성 중심 포트폴리오, 자산중심 중심 포트폴리오, 위험대비 중심 포트폴리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구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종류는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노년기 단계에서는 점점 감소하였고, 부동산에 투자한 비중은 가족생활주기가 진전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노년기에는 감소된 소득원을 위한 실물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Hefferan(1982)은 1972-1973 미국의 '소비자 지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특성이 서로 다른 집단의 저축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여

성가구주 가계는 준거집단(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남성이 가장인 가계)에 비해 저축총액 수준, 조사기간 동안의 순자산 증가액, 총투자액, 교육비, 보험, 연금이 유의하게 낮았고, 저축 보유액의 비중은 높았으며, 보험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맞벌이 가계는 준거집단에 비해 교육비 지출액이 유의하게 높았고, 수표와 주식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연구자는 가계의 저축수준은 소득, 취업자 수, 총자산, 주택소유 형태, 가구주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김순미(1987)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금융자산 선택행동을 예측행동, 분석행동, 선택행동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금융자산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는데, 그 결과 결혼 년 수, 자산, 부채 유무, 미래에 대한 예견,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인지, 준거집단의 영향력, 남편의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영(1996)은 결혼초기에는 자가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임대주택 집단에 비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두 더 작게 보유하고, 결혼중기에는 자가주택을 소유한 집단이 임대주택 집단에 비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두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숙재·양정선(1996)은 위험자산보유여부, 위험자산 투자액을 설명해 주는 영향요인을 구명하기 위해 로짓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험자산 보유여부의 경우, 도시 가계일수록, 자영업자 보다 봉급생활자 가계가,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총가계지출이 많은 가계일수록 위험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자산 투자액의 경우 자산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총지출이 많

은 가계일수록 위험자산 투자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금까지의 소비자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은 한 시점에서의 투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 특성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급격한 금융환경변화를 초래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전과 이후에 투자행동에 있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삼성경제연구소, 1999), IMF전후의 소비자투자행동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1) 1995년과 2000년 양 시점에서 가구주 소비자연령별 소비자의 내적 투자자원에 차이가 있는가? 즉 소비자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에 차이가 있는가?

2) 양 시점에서 가구주 소비자연령별 투자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즉 양 시점에서 소비자연령별로 투자대안에 따른 투자비중은 차이가 있는가?

3) 양 시점에서의 가구주 소비자연령별 투자성장에 차이가 있는가? 즉 양 시점에서 소비자연령별 투자수익과 투자수익률은 차이가 있는가?

####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전후 금융환경변화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장 급변하고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1995년부터 200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금융환경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5년과 2000년 소비자연령별 투자행동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2차 자료와 3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내구재 및 자산보유실태 등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199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가구원 및 주거 등 가구에 관한 일반사항은 27개 항목, 지출관련 5개 항목, 저축 및 부채관련 2개 항목, 가구내구재 1개 항목, 부동산 관련 3개 항목으로 총 4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차와 3차 자료는 1995년 12월 31일과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투자현황이며, 각각 1996년 10월~12월과 2001년 5월 7일~2001년 5월 18일에 조사되었고, 표본가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실사표본 조사구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2,029개 보통조사구를

<표 1> 1995년과 2000년 사이의 금융환경변화

경제지표	설명	1995년	2000년
1인당 국민총소득		10,823 \$	9,770 \$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11.93%	8.13%
연평균주가지수	(1980=100)	935.9	734.2
지가변동률	서울 기준	0.18%	0.05%
실업률		2.1%	4.1%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하고, 지역별 표본조사구 추출 시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을 가진 계통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 중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표본가구 즉, 총자산이 0인 가구와 미혼가구, 부실 기재된 가계를 제외하여 1995년 41,262가구, 2000년 18,589가구의 소비자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실증분석에 이용된 변수들 중에서 개념정의가 필요한 변수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1) 소비자 내적투자자원

경제행위를 하는 소비자 또는 가계는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재화의 생산에 참여하고 그 보수로서 각각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의 소득을 분배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소비자행동을 통하여 소비재를 구입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음 생산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환경이 변화하면 소비자의 소득 및 자산, 지출과 부채도 변화하며 이것은 소비자의 투자자금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소비자 내적투자자원이란 소비자를 둘러싼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소득, 자산, 지출, 부채와 관련된 투자자금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내부의 투자자원은 소비자의 연령 등과 상호작용하여 소비자의 투자 목표와 투자행동 및 투자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 2) 투자

투자란 시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위험

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대수익까지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시간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하는 저축과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와는 구별되는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소비자를 중심으로 본 투자는 주식 등을 비롯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저축과 보험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인식되고 있어, 투자에 대한 본래 사전적 의미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을 운용하여 보다 많은 미래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투자(investment)라 정의를 내렸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확실한 금액을 불확실한 미래로 이전시켜 그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미래의 불확실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현재의 확실한 가치를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행위의 대상으로는 요구불예금, 저축 및 신탁, 저축성보험, 유가증권, 갯돈불입금, 빌려준 돈 등의 금융자산(financial asset)과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있으나, 1996년에 조사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의 투자실태를 조사하지 않아 2001년에 조사된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비교가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5년과 2000년의 투자를 비교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한해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켰다.

#### 3) 투자행동 및 포트폴리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투자행동을 다양한 금융자산에 걸쳐진 포괄적인 투자행동으로 보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투자행동은 개별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가계를 단위로 한 상호적 의사결정을 통해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단위를 가구주 소비자로 보고자 한다.

소비자 포트폴리오란 소비자가 총자산을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하여 보유할 경우 이러한 자산 종류의 조합을 의미한다. 협의의 포트폴리오란 여러 종류의 주식의 균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에 국한된 분산투자보다는 광의의 포트폴리오로서 여러 개의 자산이 결합된 자산군으로 정의하였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항목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감소하며, 이를 위험분산효과라 한다. 즉, 가계가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동시에 투자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포트폴리오 위험은 개별자산의 위험의 합보다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투자행동을 소비자가 1995년과 2000년에 보유한 다양한 금융자산의 투자금액과 이것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총 금융자산 대비 투자수익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4) 소비자의 연령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의 가구주 소비자로 구분하였으며 20대 이하의 가구주 소비자를 제외하였다.

#### 4. 자료의 분석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1995년과 2000년 각 시점에서의 연령별 투자행동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을 연령별(5계층)로 나누었다. 우선 연령별 소비자집단별로 횡단비교를 하고, 1995년과 2000년의 종단비교를 실시한다.

1995년과 2000년 양 시점에서의 연령집단별 내적 투자자원, 투자비중, 투자성과의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를 실

시하였다. 1995년과 2000년의 화폐가치를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해 1995년의 화폐가치를 소비자물가지수(2000=100, 1995=82.3)를 이용하여 2000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1995년과 2000년의 소비자 집단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의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 2>를 보면 1995년과 2000년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40대 이하의 소비자집단에서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에 비해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직업의 경우에도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40대 이하의 소비자집단에서 무직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소비자집단에서는 무직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1995년에 비해 2000년 무직의 비율을 두 배정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가보유여부의 경우에는 1995년에 비해 2000년 자가보유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50대 이상 소비자집단의 자기보유비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1995년과 2000년 연령별 내적 투자자원의 차이 및 비교

1995년과 2000년 양 시점에서의 연령별 소비자 투자행동 차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양 시점 간에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 내부적 투자자원들이 어떻게 변화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가구주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95년 N=41,262	'00년 N=18,589	'95년 N=1,082	'00년 N=1,029	'95년 N=4,154	'00년 N=4,749	'95년 N=8,478	'00년 N=6132	'95년 N=12,972	'00년 N=3,702	'95년 N=14,576	'00년 N=2,977
가구원 수	평균	3.6	3.5	2.5	2.8	3.1	3.6	3.8	3.8	4.0	3.4	3.5	2.8
가구주 성별	남	85.6	84.1	80.4	68.4	80.3	89.1	82.6	84.6	87.8	82.8	87.3	82.0
	여	14.4	15.9	19.6	31.6	19.7	10.9	17.4	15.4	12.2	17.2	12.7	18.0
가구주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30.2	28.9	72.1	2.8	56.3	6.1	47.9	24.9	29.9	46.8	9.6	60.2
	고등학교	43.5	42.3	15.3	50.8	25.8	50.6	36.3	46.8	46.2	37.2	52.6	22.9
	대학교 이상	26.3	28.9	12.6	46.4	18.0	43.3	15.9	28.3	23.9	15.9	37.9	16.9
가구주 직업	근로자	63.1	56.9	16.6	73.9	52.5	70.4	61.8	58.1	59.5	53.9	73.7	30.7
	자영업	28.7	28.2	16.8	11.3	26.2	25.0	31.2	34.9	36.8	32.9	21.5	19.8
	무직	8.2	14.9	66.5	14.9	21.3	4.7	7.0	7.1	3.8	13.3	4.8	49.6
거주 지역	서울	14.8	13.7	8.9	16.8	11.5	16.1	13.5	13.5	13.2	15.0	13.5	14.4
	광역시	41.6	45.0	35.7	40.9	42.6	40.5	43.2	42.6	41.5	44.0	39.3	38.4
	기타	43.6	41.4	55.5	42.3	45.9	43.4	43.3	43.9	45.3	41.0	47.3	47.2
자가 보유 여부	보유	52.8	59.0	82.8	18.4	79.8	38.5	72.9	61.4	53.9	75.9	30.2	79.4
	비보유	47.2	41.1	17.2	81.6	20.2	61.5	27.1	38.6	46.2	24.1	69.8	20.6

하였는가에 따라 소비자들이 행하는 투자행동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5년과 2000년 사이의 전체 소비자의 내적 투자자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상소득은 약 8% 감소한 반면 가계지출은 6.0%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비자 경상소득의 감소는 1997년 말 발생한 IMF에 따른 1인당 국민총소득 감소(1995년 10823\$→2000년 9770\$)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 보유액은 1995년보다 7.7% 증가하였으며, 부채액은 14.8% 증가하였다. 즉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소비자의 2000년 재무구조는 1995년보다 전반적으로 취약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구주 연령별 내적 투자자원의 특성, 즉 경상소득, 가계지출, 금융

자산, 부채의 소비자 연령별 보유액을 살펴보면, 모두 4050대까지 증가하다가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높으며 그 후 노년기가 되면 소득이 감소한다는 가족생활주기 이론과 상통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연령이 20대인 소비자의 경상소득만이 증가(약 26%)하였으며, 60대의 경상소득 감소 폭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1995년에는 60대 소비자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가 5% 미만이었으나 2000년에는 거의 50%를 차지하여 평균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IMF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이 불안해지자 가장 먼저 나이가 많은 집단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음을 시사한다. 1995년



<표 3> 연령별 내적 투자자원의 차이 및 비교

(단위 = 만원, %)

특성	구분	전체 '95 N=41,262 '00 N=18,589	가구주 소비자 연령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5 N=1,082 '00 N=1,029	'95 N=4,154 '00 N=4,749	'95 N=8,478 '00 N=6,132	'95 N=12,972 '00 N=3,702	'95 N=14,576 '00 N=2,977	
경상소득 (연 기준)	1995년	3,080	1,713	3,022	3,538	3,305	2,732	362.00* **
	2000년	2,843	2,157	2,728	3,233	3,177	2,044	101.55* **
	증감액	-237	444	-294	-305	-128	-688	
	증감률	-7.6	25.9	-9.7	-8.6	-3.8	-25.1	
가계지출 (연 기준)	1995년	2,195	1,474	2,265	2,588	2,313	1,896	165.84***
	2000년	2,326	1,774	2,193	2,616	2,624	1,760	317.88***
	증감액	131	300	-72	28	311	-136	
	증감률	5.9	20.3	-3.1	1.0	13.4	-7.1	
금융자산 (연말 기준)	1995년	2,209	2,362	2,599	2,636	2,370	1,696	117.24***
	2000년	2,378	1,125	1,753	2,517	2,988	2,765	63.94***
	증감액	169	-1,237	-846	-119	618	1,069	
	증감률	7.6	-52.3	-32.5	-4.5	26.0	63.0	
부채 (연말 기준)	1995년	791	270	659	809	911	751	60.89***
	2000년	908	397	919	1,145	916	571	56.81***
	증감액	117	127	260	336	5	-180	
	증감률	14.7	47.0	39.4	41.5	0.5	-23.9	

주) 1996년에는 「비경상소득」을 조사하지 않았음  
따라서 총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보았다.

에 비해 2000년에 오히려 30대와 60대 소비자 집단의 가계지출액은 감소했는데 60대의 경우, 1995년에 비해 2000년 경상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도 감소하여 절대적 지출요구 및 가용 자원량 감소가 아울러 작용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0대 경우도 60대에 이어 2000년에 두 번째로 소득이 감소한 집단으로 소득감소로 인한 지출감소로 판단된다.

한편 금융자산은 50대 이상 집단에서만 증

가하였는데, 이는 IMF를 계기로 하여 유동성 부족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인지하게 된 50대 이상 소비자들이 노후자금 등의 형태로 부동산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20대와 30대 소비자들의 금융자산액은 각각 52.4%, 32.6% 감소하였고, 50대와 60대 이상의 소비자들의 금융자산액은 각각 26.1%, 63.0% 증가하였다. 부채보유액에서는 60대 이상의 소비자만이 24.0%로 감소하였을 뿐 나머

지 연령층에서는 부채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8년 하반기부터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총체적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소비자 투자비중 차이 및 비교(총 금융자산 대비 투자비율)

소비자의 연령에 따라 그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투자대안별 투자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투자대안별 투자비중

을 살펴보면, 요구불예금의 투자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가 1995년에는 20대 집단(약 20%)인 반면 2000년에는 60대 이상의 소비자들(약 17%)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의 특성 차이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앞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의 20대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소비자의 비중이 72%이고 무직자의 비중이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율은 매우 높아 전체의 4/5이상이 자기 집을 보유 한 반면, 2000년의 20대 집단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97%이고, 무직자의 비율도

<표 4> 연령별 투자대안에 따른 투자비중 차이 및 비교

(단위 = %)

특성	구분	전체 '95 N=41,262 '00 N=18,589	가구주 소비자 연령					F
			20대 '95 N=1,082 '00 N=1,029	30대 '95 N=4,154 '00 N=4,749	40대 '95 N=8,478 '00 N=6,132	50대 '95 N=12,972 '00 N=3,702	60대 이상 '95 N=14,576 '00 N=2,977	
요구불예금	1995년	16.3(360)	19.6(464)	16.3(427)	16.5(436)	16.6(394)	15.3(259)	240.97***
	2000년	13.9(331)	15.9(179)	12.7(222)	13.3(334)	13.6(407)	16.6(459)	127.34***
	증감률	-2.5	-3.7	-3.6	-3.2	-3.0	1.3	
저축 및 신탁	1995년	47.7(1,054)	52.8(1,246)	55.3(1,438)	49.4(1,301)	44.3(1,049)	46.6(791)	27.38***
	2000년	51.8(1,232)	57.2(643)	44.8(785)	47.7(1,200)	55.5(1,659)	60.8(1,682)	19.38***
	증감률	4.1	4.4	-10.5	-1.7	11.2	14.2	
저축성보험	1995년	16.4(362)	4.2(100)	9.7(251)	14.6(386)	18.4(435)	19.8(335)	267.57***
	2000년	14.4(342)	12.7(143)	19.3(339)	16.8(422)	12.6(376)	7.7(212)	147.65***
	증감률	-2.0	8.5	9.6	2.2	-5.8	-12.1	
유가증권	1995년	4.4(97)	3.7(88)	5.5(142)	3.8(101)	4.6(108)	4.2(72)	12.52***
	2000년	9.5(226)	6.0(68)	11.5(201)	11.4(287)	8.7(259)	5.5(151)	31.66***
	증감률	5.1	2.3	6.0	7.6	4.1	1.3	
갯돈불입금	1995년	5.1(113)	2.2(53)	5.1(133)	5.3(140)	5.4(129)	4.9(83)	24.81***
	2000년	1.7(41)	1.2(13)	1.7(30)	1.9(48)	2.1(63)	1.0(28)	6.16***
	증감률	-3.4	-1.0	-3.4	-3.4	-3.3	-3.9	
빌려준 돈	1995년	10.1(223)	18.7(442)	8.0(207)	10.3(272)	10.7(254)	9.2(156)	7.10***
	2000년	8.6(205)	7.0(79)	10.0(175)	8.9(225)	7.5(223)	8.4(232)	6.23***
	증감률	1.5	-11.7	2.0	-1.4	-3.2	-0.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5%로 매우 낮지만 자가 보유율은 매우 낮아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는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많은 정보와 지속적인 관리 및 투자유지를 필요로 하는데 1995년의 20대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자산유형에 투자하기에는 현재의 생활비 충당이 급한데다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언제나 입출이 가능하고 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요구불예금에 다른 연령 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0년 20대의 고용과 학력수준이 개선되면서 이자가 거의 없는 요구불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다수가 자기인 1995년의 20대는 자기 집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에 대다수가 타가인 2000년의 20대 가구주 집단은 앞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마련과 관련된 보다 좋은 조건의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비중을 증가시켜 요구불예금 이용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60대 집단에서의 요구불예금 비중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 60대 소비자의 2000년 상황은 20대의 1995년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즉 60대는 1995년에 비해 2000년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주와 무직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자가 보유율은 크게 증가하여 요구불예금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시점의 모든 연령대가 저축 및 신탁에 가장 많은 투자비중을 할애하고 있었다. 특히 30대 집단은 1995년에 가장 많은 투자비중을 할애하였으나(55%), 2000년에는 모든 연령 대 중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할애하여 약 11%라는 비중 감소를 보였다. 반면에 2000년에 모든 연령 대 중에서 저축 및 신탁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한 60대 집단의 경우 14% 이상의

투자비중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대 60대 집단에서 무직자의 비중이 높은데다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집단의 특성이 더욱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1995년에는 20대가, 2000년에는 60대 이상 집단이 가장 낮은 비중을 할애하였다. 또한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저축성보험의 투자비중이 2대 집단에서는 약 9%, 30대 집단에서는 약 10% 증가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각각 6%, 12% 감소하였는데, 이런 비중변화는 1995년과 2000년의 총 금융자산액의 변화와 보험상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995년에 비해 2000년도 20대와 30대의 금융자산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확정수익과 더불어 보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특성상 만기 전 해약시 상당한 원금손실이 있어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감소한 금융자산 대비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축성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이 크게 필요치 않은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대안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자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에 따라 투자액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일정수준에 가서는 감소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가 2000년에 50대와 60대 집단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 1995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가 2000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에 저금리의 영향(평균 8%)으로 주식이나 주식관련 상품이 고수익 투자수단으로서 부각한데다가, 종합주가지수 734로 상당히 낮아 추후 주가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비중을 증가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5년과 2000년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투자비중을 할애했는데, 이는 30대가 20대 보다는 어느 정도 투자자금이 확보되어 있는데다가 50대 이후 집단 보다는 투자실패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이 있으면서도 가족원의 자금수요가 아직은 크지 않아 보다 공격적인 투자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0대 집단의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성향은 특히 2000년 30대 집단의 특성, 즉 20대를 제외하곤 고졸 이하 저학력 비중이 가장 낮은 점, 모든 연령대에서 무직비율이 가장 낮은 점 등과 같은 특성과도 연루되어 유가증권투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갯돈불입금과 빌려준 돈의 투자비중은 30대 소비자의 빌려준 돈 투자비중이 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 금융 퇴조와 개인 간 거래 감소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5년의 소비자의 연령별 금융자산 대비 투자비중순위를 살펴보면, 연령 대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비중을 저축/신탁에 두고 있었으며, 40대 이상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20, 30대 집단에서는 갯돈

불입금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2000년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투자비중 1순위는 저축/신탁에 있었고, 가장 최하순위는 갯돈불입금에 있었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50대 이상 모든 연령집단이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투자비중을 늘렸으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40대 이하 모든 집단에서 투자비중을 증가시켰다. 40대 이하 소비자들의 저축성보험 투자비중이 늘어난 원인은 가구주의 연령상 장기적 노후대비를 준비해야 하고 IMF 이후 소득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의 비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여 총 금융자산 대비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많은 소비자가 위험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빌려준 돈의 경우 60대 이상 연령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이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빌려준 돈의 비중을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는 첫째 총체적인 금융자산의 감소로 인하여 남에게 빌려줄 돈의 여유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IMF 이후 개인파산의 중

<표 5> 투자대안별 투자비중 순위 변화

비중 순위	가구주 소비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5년 N=1,082	'00년 N=1,029	'95년 N=4,154	'00년 N=4,749	'95년 N=8,478	'00년 N=6,132	'95년 N=12,972	'00년 N=3,702	'95년 N=14,576	'00년 N=2,977
1	저축/신탁	저축/신탁	저축/신탁	저축/신탁	저축/신탁	저축/신탁	저축/신탁	저축/신탁	저축/신탁	저축/신탁
2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보험	요구불예금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요구불예금	저축성보험	요구불예금
3	빌려준 돈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요구불예금	저축성보험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보험	요구불예금	빌려준 돈
4	저축성보험	빌려준 돈	빌려준 돈	유가증권	빌려준 돈	유가증권	빌려준 돈	유가증권	빌려준 돈	저축성보험
5	유가증권	유가증권	유가증권	빌려준 돈	갯돈불입금	빌려준 돈	갯돈불입금	빌려준 돈	갯돈불입금	유가증권
6	갯돈불입금	갯돈불입금	갯돈불입금	갯돈불입금	유가증권	갯돈불입금	유가증권	갯돈불입금	유가증권	갯돈불입금

가로 사적인 거래의 위험인식이 증가하여 소비자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빌려준 돈의 비중을 축소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 연령 집단에서 2000년 빌려준 돈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집단이 노후생활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실직이나 기타사유로 돈이 필요한 자식들에게 빌려줬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자를 목적으로 남에게 빌려주기 보다는 자식들에게 빌려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3. 연령별 투자성과 차이 및 비교

#### 1) 투자수익 차이 및 변화

소비자 연령별로 1995년과 2000년의 투자수익 규모를 살펴보면 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연령별 소비자의 연평균 투자수익 규모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20대의 평균 투자수익이 153만 9천원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높은 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에는 60대 이상 소비자의 평균 투자수익이 152만 5천원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투자수익액의 증감률을 보면 40대 이하 소비자들은 1995년에 비해 크게 감소된 투자수익

을 얻은 반면, 50대 이상의 소비자들은 1995년에 비해 크게 증가된 투자수익을 얻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소비자들은 32만 5천원이었던 수익금이 2000년에는 152만 5천원으로 나타나 약 3.5배 많은 수익을 실현했다.

#### 2) 투자수익률 차이 및 변화

금융자산대비 이자배당수익률을 소비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1995년에는 20대 수익률이 3.8% 60대 이상의 수익률이 1.0%로 연령이 적을수록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였으나, 2000년에는 60대 이상의 수익률이 3.9% 20대 수익률이 2.4%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인다. 즉 40대 이하 소비자의 투자수익률은 95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50대 이상 소비자의 투자수익률은 1995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평균 증가지수가 1995년 934.9에서 2000년 734.2로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증권과 신탁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3040대 소비자에게 증가지수의 큰 하락은 투자손실 또는 저조한 투자수익을 의미한다.

수익률 정도에 따른 소비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투자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소비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 대에서 감소한 반

<표 6> 투자수익 변화

(단위 = 만원, %)

특성	구분	전체 '95 N=41,262 '00 N=18,589	가구주 소비자 연령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5 N=1,082 '00 N=1,029	'95 N=4,154 '00 N=4,749	'95 N=8,478 '00 N=6,132	'95 N=12,972 '00 N=3,702	'95 N=14,576 '00 N=2,977	
이자배당 소득	1995년	68.6	153.9	100.4	100.9	70.8	32.5	96.14***
	2000년	91.0	28.8	49.4	87.2	118.6	152.5	66.15***
	증감액	22.4	-125.1	-51	-13.7	47.8	120	
	증감률	32.6	-81.2	-50.7	-13.5	67.5	369.2	

<표 7> 투자수익률 변화

(단위 = %)

특성	구분	전체 '95 N=41,262 '00 N=18,589	가구주 소비자 연령					F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5 N=1,082 '00 N=1,029	'95 N=4,154 '00 N=4,749	'95 N=8,478 '00 N=6,132	'95 N=12,972 '00 N=3,702	'95 N=14,576 '00 N=2,977	
0%	1995년	77.0	68.0	75.7	73.9	75.8	80.8	576.7760*** 315.0492***
	2000년	56.6	68.3	60.5	56.0	52.8	52.1	
	증감율	-26.4	0.4	-20.0	-24.2	-30.3	-35.5	
0% 초과 3% 미만	1995년	8.0	4.8	5.8	8.2	8.2	8.6	
	2000년	17.9	15.7	19.2	18.9	18.9	13.1	
	증감율	123.7	227.0	231.0	130.4	130.4	52.3	
3% 이상 10% 미만	1995년	10.5	15.2	12.4	11.4	11.4	8.1	
	2000년	21.2	13.2	16.7	20.8	24.3	28.5	
	증감율	101.9	-13.1	34.6	82.4	113.1	251.8	
10% 이상	1995년	4.6	12.0	6.1	6.4	4.6	2.6	
	2000년	4.3	2.7	3.6	4.3	4.1	6.3	
	증감율	-6.5	-77.5	-40.9	-32.8	-10.8	142.3	
투자금액대비 평균수익률	1995년	1.7	3.8	3.0	2.2	1.7	1.0	29.55***
	2000년	2.8	2.4	2.5	2.7	2.7	3.9	3.28***
	증감율	64.7	-36.8	-16.6	22.7	58.8	290.0	

주) 95년 수익률 대비 증감비율

면 10% 이상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낸 소비자의 비율은 60대 이상의 소비자 집단만이 증가하였을 뿐 다른 연령 대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60대를 제외한 소비자들의 2000년 수익률 분포는 1995년에 비해 고수익자 수가 적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 자리수에 그치는 수익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 전인 1995년과 이후 2000년 양 시점에서 연령에 따른 투자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비교하였다.

먼저 1995년과 2000년 양 시점에서의 소비

자 내적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해 2000년 한국의 경상소득은 1995년에 비해 약 8% 감소한 반면 가계지출은 약 6% 증가하여 전체소비자의 재무구조는 1995년보다 2000년에 전반적으로 더 취약해졌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2000년에 20대 소비자의 경상소득만이 1995년보다 증가하였으며, 60대의 경상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가계지출의 경우는 2000년 20대, 40대, 50대 연령집단의 가계지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금융자산 보유액에서는 50대 이상 소비자집단의 경우만 증가하였고, 특히 20대·30대 젊은 집단의 2000년 금융자산보유액은 1995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부채보유액에서는 60대 이상의 소비자

집단만이 2000년에 감소하였을 뿐 나머지 연령집단에서의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안별 투자비중의 차이와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에 40대 이하 집단에서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투자비중이, 50대 이상의 소비자집단에서는 저축 및 신탁의 투자비중이 1995년 보다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 및 신탁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증가했던 1995년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1995년의 경우 연령층이 높을수록 젊은 연령층에 비해 목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들 집단이 자금을 금융자산 내에 투자하기 보다는 목돈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보험의 특성상 해약시 원금손실을 보게 되는 저축성보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투자액의 누적으로 일정 범위에서 투자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은 1995년에 비해(서울기준 0.18%) 지가변동률이 매우 낮아져(서울기준 0.05%) 부동산투자의 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의 연령집단이 안전하면서도 유동성이 높은 저축 및 신탁 상품의 부차지분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IMF 체제시 시작된 '대량해고'와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는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고 특히 힘든 상황에서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어린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증가한데다 저금리 속에서 일정한 수익을 약속해주는 저축성보험이 목돈마련이 필요한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이하 가구주집단에 유리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융자산 대비 이자·배당수익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5년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였으나, 2000년에는 이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1995년과 2000년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주요 근로계층인 30·40대의 재정적 지위가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대·40대 소비자집단은 소득감소로 인한 지출감소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도 감소한 반면에 부채는 크게 증가하여 개인파산의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집단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포함한 지출관리전략 및 부채관리 전략, 금융자산 투자전략 등과 같은 보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1995년에 비해 모든 연령집단이 2000년에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유가증권 투자전략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키고 때에 따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유가증권투자가 수익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 가능한 것일 것이다. 연령대의 특성에 맞는 유가증권 투자전략의 개발과 보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투자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연령별로 투자행동이 양 시점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2000년에 40대 이하 집단에서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투자비중이, 50대 이상의 소비자집단에서는 저축 및 신탁의 투자비중이 1995년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소비자집단의 연령을 고려하여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정보제공과 투자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

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용한 자료와 적용한 방법상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투자상품들이 등장하고 금융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재무상담 및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재무상담 및 재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소비자의 연령에 초점을 두어 1995년과 2000년 양 시점간에 소비자투자행동 및 투자성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투자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는 소비자가 투자하는 대상으로 금융자산만을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의 2차 자료에는 부동산투자에 관련된 조사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3차 조사의 부동산투자 관련 항목과 비교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소비자의 투자행동과 투자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후속연구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2차 자료는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조사가 된 반면 3차 자료는 금융상품별로 조사가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다소 포괄적인 투자대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투자수익 역시 투자대안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투자행동에 따른 투자수익의 변화를 해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투자행동 및 투자성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금융상품별로 좀 더 세분화되어 조사된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순미(1987). 도시가계의 금융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문숙재, 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09-120.
- 3) 박주영, 최현자(1999). 자산계층별 가계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4, 193-206.
- 4) 배미경(2002). 은퇴기 가계의 투자행동분석.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8, 189-198.
- 5) 범수인(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삼성경제연구소(1998). IMF 충격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 7) 삼성경제연구소(2001). 민간부분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8) 삼성경제연구소(2002). 가계의 부채수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행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9) 삼성경제연구소(2003). 저축률 변화추이 분석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10) 손주영(1998). 도시가계의 가계자산 투자행태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11) 손주영, 이연숙(1999). 도시가계의 가계자산 투자행태 및 관련 변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67-82.
- 12) 양은진(1998). 우리나라 가구특성별 도시



- 가계 저축행태 분석 : 1994년 한국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한 횡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양정선(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유경아(2000). 도시가계의 저축률 변화추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 학원석사학위논문.
  - 15) 유성희, 김성우(1997). 개인투자자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8호, 337-359.
  - 16) 윤지현(2001). 가계의 자산증식행동에 관한 연구 : 정보탐색활동과 투자지식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7) 이기춘, 박근주(2002). 자산과 부채 보유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유형별 가계 포트폴리오의 특성. 한국소비자학회지 13(1), 45-73.
  - 18) 정운영(1996). 도시가계의 투자행동 : 결혼 초기와 중기의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정운영, 황덕순(1996). 결혼초기가계와 중기가계의 투자행동 비교. 전남대가정과학연구 6, 123-139.
  - 20) 정은주, 문숙재(1992). 가계투자행동의 인과적 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88, 219-235.
  - 21) 최현자, 박주영(2002).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계포트폴리오 변화유형 및 각 유형별 가계특성 분석 : IMF 경제위기동안의 재무의사결정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51-162.
  - 22) 최현자, 이은실(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2.
  - 23)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74.
  - 24) Bodie, Z. & Merton, R. C.(1998). *Finance*. Prentice-Hall.
  - 25) Hanna, S., Fan, J. X., & Chang, Y. R.(1995). Optimal life cycle savings.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6, 1-15.
  - 26) Hefferan, C.(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ERJ* 11(1), 47-55.
  - 27) Ho, K., Perdue, G., & Robinson, C.(1998). *Personal Financial Planning*, Captus press.
  - 28) Kapoor, J., Dlabay, L. R., & Hughes, R. J.(1996), *Personal Finance*. IRWIN.
  - 29) Modigliani, F. & Brumberg, R.(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 An interpretation of cross-section data. In K.Kruihara(Ed.). *Post Keynesian Economics* (388-436). Rutgers University Press : New Brunswick NJ.
  - 30) Ramaswami, S.N., Srivastava, R.K. & McInish, T.H.(1992). An exploratory study of portfolio objectives and asset holding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19, 285-306.
  - 31) Weagley, R.O. & Gannon, C.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154.
  - 32) Xiao, J. J.(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21-30.